

◆ [Focus] IRA 재무부 시행지침 발표 임박, 핵심 광물 규정에 관심 집중

◆ [What's News]

- (북미) 美·캐나다 정상회담 개최... 공급망·반도체 분야 등 협력 강화
- (무역일반) 美 의회, 자유무역에 기반을 둔 무역 협상 주문
- (친환경) 美 국무부, 국제 탄소 시장을 위한 민·관 협력 검토
- (의회동향) 상원 재정위, USTR 타이 대표 출석 청문회 개최
- (입법동향) 미 상원, 중국과의 정상무역관계 종료 법안 발의

◆ [Top Headlines] 5대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

## FOCUS

### (배터리) IRA 재무부 시행지침 발표 임박, 핵심 광물 규정에 관심 집중

#### 1. 개요 및 배경

- 재무부, 차주 중 IRA 세액공제 원산지 요건 지침 공개 예정
  - 재무부는 작년 12월 IRA 전기차 세액공제 지침 공개 당시,
    - 올해 3월 내 전기차 세액공제를 위한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원산지 세부 규정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음.
  - 이와 동시에, 최종 원산지 규정 발표 전에 제조 기업이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예비정보를 담은 백서(white paper) 공개
- 언론은 차주에 공개될 재무부 규정에서 사소한 용어 정의 차이만으로 업계에 큰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 (블룸버그, 2.22)
  - 일부 품목이 핵심 광물 또는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 중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

## 2. 백서 주요 내용

□ (개요) 작년 12.29 발표된 백서에는 전기차 세액공제를 위한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의 △원산지 요건 △용어 정의 △공정별 가치산정 방식 등 예상 규정 방침(anticipated direction)에 관한 정보 수록

□ 상세 내용

### (1) 핵심 광물 요건

○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 광물(critical mineral) 가치의 최소 40% 이상\*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(extract) 또는 처리(process)되거나, 북미지역에서 재활용(recycle)되어야 함.

\* 2024년 50% ⇒ 2025년 60% ⇒ 2026년 70% ⇒ 2027년부터 80%로 인상

○ 채굴, 처리, 재활용, 구성 재료(constituent materials)\*, 부가가치(value added), 자유무역(free trade agreement) 등에 대한 용어 정의

\* 구성 재료에 음극재(캐소드) 활성용 분말, 양극재(애노드) 활성용 분말, 호일, 고체 전극용 금속, 바인더, 전해질 염 및 전해질 첨가제 등 포함

○ 원산지 요건 산정 방식

- (1단계) 제조사는 핵심 광물 조달처를 채굴, 처리, 재활용별로 구분

- (2단계) 해당 핵심 광물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처리되거나, 북미지역에서 재활용됐는지 여부 확인  
⇒ 핵심 광물 전체 공급망(채굴·처리)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의 50%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내 발생하면, 이를 '자격 있는 핵심 광물'(qualified critical minerals)로 간주

\* 재활용의 경우 최소 50%의 부가가치가 북미지역에서 발생 요구

- (3단계) 전체 배터리에 함유되는 핵심 광물의 가치가 최소 40% 이상 (2023년 기준)이 되면, 전기차 세액공제 3,750달러 인정

\* 재무부 지침 제안 이후 2023년부터 운행되는 차량에 적용

## (2) 배터리 부품 요건

-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% 이상\*이 북미지역 안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,750달러 세액공제 인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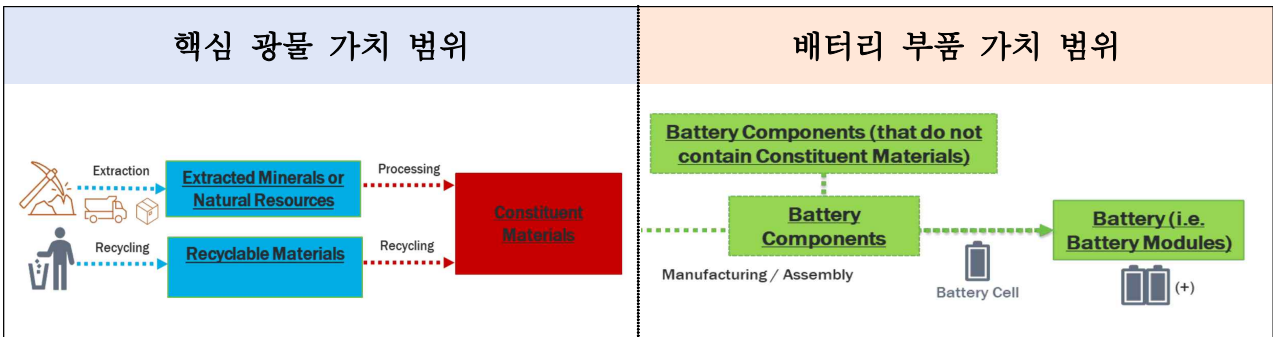
\* 2024~2025년 60% ⇒ 2026년 70% ⇒ 2027년 80% ⇒ 2028년 90% ⇒ 2028년 이후 100%

- 배터리 부품은 공업, 화학, 물리적 공정을 거친 하나 또는 다수의 부품 및 구성 재료를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의미

- 캐소드 전극, 애노드 전극, 고체 금속 전극, 분리막, 액체 전해질, 고체 전해질, 배터리 셀, 배터리 모듈 등을 포함

\*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명시

<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가치사슬 분류 >



[자료] 재무부 백서

### ○ 원산지 요건 산정 방식

- (1단계) 배터리 부품의 거의 모든 제조 또는 조립 활동이 북미지역 내에서 발생했는지 여부 확인

- (2단계) 개별 배터리 부품의 증분 가치\*(incremental value)를 산정

\* 증분 가치는 해당 배터리 부품의 전체 가치에서 배터리 부품을 제조 또는 조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치를 뺀 값을 의미

- (3단계) 개별 부품의 증분 가치를 합해 전체 배터리 부품 가치 책정

\* 또는 개별 배터리 모듈의 가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총 배터리 가치 책정 가능

- (4단계) 북미지역에서 발생한 증분 가치의 합을 전체 증분 가치로 나눔으로써 북미지역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가치 비중을 계산

### 3.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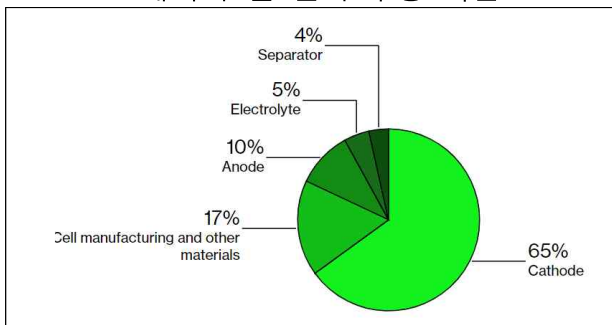
□ '구성 재료'를 핵심 광물 범주에 포함 ⇒ 한국을 최대 수혜국으로 전망

- 블룸버그 통신(3.22자)은 차주 발표될 재무부 최종 규정에서 양극재·음극재(구성 재료)를 '핵심 광물'로 분류할 경우(백서에서와 같이),
  - 향후 글로벌 배터리 가치사슬과 기업의 투자 전략 수정 불가피 예상
  - \* 반도체 셀 생산원가에서 양극재·음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%
- 해당 규정 확정 시,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국이 될 것으로 분석
  - 백서와 같이 '핵심 광물'로 분류되면,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양극재·음극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됨.
  - \* 양극재·음극재 생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韓·中·日 중 현재 우리나라만 미국과 FTA 체결

□ 우리 양극재 생산 기업의 미국 진출에 중대 고려 사항으로 부상

- 한국경제신문(1.12)에 따르면, '22년 우리 양극재 수출액은 102억 달러로 전년 44억 달러 대비 급증 (국제 삼원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50% 이상)
- 포스코케미칼, 에코프로비엠, 엘앤에프 등 미국 생산 진출에 박차 중
  - 양극재 공정 중 (1) 전처리, (2) 1차 소성, (3) 후처리까지는 국내에서 수행하고 (4) 2차 소성 등 후공정은 미국에서 마무리하는 전략 고려 가능

< 배터리 셀 원가 구성 비율 >



[자료] BloombergNEF \* 니켈 기반 양극재 기준

< 양극재 제조 공정 순서 >



[자료] LG케스토피아

■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이정민
■ 자료원	블룸버그(3.22), 재무부 백서(12.29), 한국경제신문(1.12)

□ **(북미) 美·캐나다 정상회담 개최... 공급망·반도체 분야 등 협력 강화**

- (개요) 미국 바이든 대통령,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 실시(3.24)
  - 양국 간 동반 관계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공동의 안보와 번영 및 가치 촉진 노력 발표
  - 백악관 국가안보회의(NSC) 대변인은 “캐나다는 관계가 150년 이상 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친구 중 하나”로 언급
- (상세) 국방, 공급망, 반도체, 광물 및 배터리 등 파트너십 강화
  - (국방) 러시아·우크라이나·중국 등 역내 안보·국방력 증진을 위한 북대서양 조약기구(NATO) 및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(NORAD) 역할 논의
  - (공급망) IRA, 반도체법 필두로 역내 통합 공급망 구축 노력 등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미국-캐나다 협력 강화
    - \* 캐나다 핵심광물인프리펀드(기존 15억 캐나다 달러)에 15억 캐나다 달러 추가 편성
  - (반도체) 미국의 반도체법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 투자 추진 활성화 등 양국의 반도체 협력 확대에 대한 고위급 합의 체결 전망
    - \* 미국 반도체 기업 IBM과 캐나다와 협력 확대(신규 및 확장 패키징 등) 양해각서 추진
    - \*\* 북미 반도체 및 인쇄 회로 기판의 고급 패키징 강화를 위한 DPA 자금 5천만 달러 책정
  - (광물 및 배터리) 보조금 지급과 더불어 자국 산업 경쟁력 유지 노력 : 미국은 중국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 감소 노력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를 위한 광물 및 희토류 원소 공급에서 캐나다 협력 절실
  - (기후변화)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청정에너지 경제 성장 공동 노력
    - \* '35년까지 순 제로 전력망 달성, 충전 표준화 작업, Energy Earthshot 협력 등
  - (기타) 금융 시장 위기 관련 논의, 아이티 불안정성에 대한 공동 대응, 국경 인근(뉴욕, 버몬트, 뉴햄프셔)의 이민자 관련 문제 등 논의 실시

▪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김준희

▪ 자료원 | 백악관(3.24), 블룸버그(3.23), WP(3.24)

## □ [무역일반] 美 의회, 자유무역에 기반을 둔 무역 협상 주문

- (개요) 하원 세입부, 바이든 대통령에게 무역 협상 관련 서한 발송
  - 아드리안 스미스(Adrian Smith) 하원 세입부 위원장과 19인의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의회의 비준 과정을 걸칠 “명확한 무역 이니셔티브”를 요구하는 서한 발송(3.23)
  - 동 서한은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(3.23)와 하원 청문회(3.24)에서 현 정부의 무역 정책을 설명 중인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(USTR) 대표에게도 발송
- (상세) 현 협상에서 관세 인하와 자유무역 의제 협상 부족을 지적
  - 서한은 현 정부가 진행 중인 “포괄적 통상 의제” 협상에서 관세 인하에 대한 논의가 배제된 것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, 안보를 우선 시하지 않고,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비판
  -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2년 동안 기후변화, 공급망 등 광범위한 “포괄적인 통상 의제”에 기반한 협상은 실질적인 무역 이니셔티브 실현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
- (전망) 의회의 높은 비판 수위에 향후 바이든 정부 무역 협상 추이 관심 요망
  - 의회는 바이든 정부의 “포괄적 통상 의제” 협상이 의회 고유의 무역 협상 권한을 우회한다고 비난하며 관세 협상, 무역촉진권한(Trading Promotion Agency) 재협상 등 전통적인 접근 요구

■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이인덕

■ 자료원 | 서한 전문([3.23](#)), 인사이드트레이드([3.23](#))

## □ [친환경] 美 국무부, 국제 탄소 시장을 위한 민관 협력 검토

- (개요) 美 국무부, 국제적 탄소 거래권 시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간 협업의 틀 마련
  - 미국은 신흥국의 탈탄소 가속화를 위해 작년 유엔 기후 정상회의 (COP27)에서 합의된 “에너지 전환 가속화”(Energy Transition Accelerator)\* 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검토
    - \* 기업들이 신흥국의 전력 생산 탈탄소화에 투자하여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 “절충교역”(offset) 프로그램
- (상세) 신흥국의 에너지 사용 탈탄소 및 가속화에 대한 접근 보완
  - 국무부는 가장 효과적인 자금 지원 방법은 선진국이 신흥국의 재생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“공정한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”(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)\*을 강화 하는 것이라고 분석
    - \* '22년 G7, EU 등 선진국은 베트남, 남아공,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과 JETP 체결
  - 또한 베조스 어스 펀드(Bezos Earth Fund), 록펠러 재단 등 민간 단체와 협업을 통해 ETA와 JETP 프로그램 간 상호보완 및 민간 자본 개입을 통한 탄소 배출권 시장 확대와 효율성 제고 검토 등 제안
- (전망) 현실적인 탄소 감축을 위한 타협과 이상적인 접근 간 견해 차이
  - 앤드루 스티어(Andrew Steer) 베조스 어스 펀드 CEO는 현실적인 탄소 감축 증가를 위해 민간기업의 탄소 거래권 개입 필요성 주장
  - 하지만 FT는 민간의 개입이 신흥국의 청정에너지 인프라 전환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“단순한 에너지 전환” 거래가 될 것이라 우려

■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이인덕
■ 자료원	파이낸셜타임스(3.20)

## □ [의회동향] 상원 재정위, USTR 타이 대표 출석 청문회 개최

- (개요) 상원 재정위원회(Finance Committee), USTR 대표 청문회 진행(3.23)
  - 인도·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(IPEF),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관련 핵심 광물 협의, 자유무역협정 동향 등 행정부 무역 의제에 관한 논의 진행
  - 상원 재정위원회에 이어, 캐서린 타이 대표는 하원 세입 위원회 청문회에도 참석할 예정(3.24)
- (상세) 주요 무역협정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 강화 필요성 강조
  - (전기차) 론 와이든(Ron Wyden) 위원장은 캐서린 타이 대표에게 주요 광물 협정 서명 전 의회에 협정 내용을 사전 공개할 것을 요구
  - 타이 대표는 무역대표부가 의회 브리핑을 충분히 진행했다고 반박\* 하며, 의회에 협정 내용 사전 공개를 거부
    - \* 2년간 국회의원 및 의원실 직원들과 380회의 브리핑을 진행
  - (IPEF) 마이크 크레이포(Mike Crapo) 의원은 외국과의 협상 진행 동향에 대해 USTR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
  - 톰 틸스(Thom Tillis) 의원은 의회 협의를 통해 IPEF 논의 사항을 입법하지 않으면 차기 정부에서 언제든 철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
  - 타이 대표는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일부 인정하며 USTR 웹페이지에 협상 텍스트 요약문을 게재하며 보완해 나갈 것으로 답변
  - 의회 승인이 필요한 자유무역협정 대신 행정부 추진 정책으로 유럽 연합, 인도, 베트남 시장 접근을 활성화한 것으로 주장하며 프레임워크 형식의 무역정책에 대한 자신감 표출
    - \* 최근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언급

▪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이준성

▪ 자료원 | 폴리티코(3.23), 인사이드트레이드(3.23) 등



## □ (입법동향) 미 상원, 중국과의 정상무역관계 종료 법안 발의

- (개요) 조시 홀리 상원의원, 중국과의 정상무역관계 종료 법안 발의(3.21)
  - 해당 법안(S.906)은 미국의 재건을 위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,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입법되었으며,
  - 발효 2년 내 중국 상품에 ① 최혜국 대우 미부여 및 ② 법정 관세율\*을 부과하고, ③ 필요시 법정 관세 이상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자는 내용
- \* 법정 관세율(Statutory Rate) : Column 2 of Harmonized Tariff Schedule
- (배경) 홀리 의원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강하고 자주적인 노동계층의 부활이 필요하다 주장
  - 중국에 항구적 정상무역관계(PNTR) 지위 부여(2000년) 후 37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져 저출산, 이혼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제기
  - 공화당 하원이 연일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가운데,
  - 일각에서는 최근 중국-러시아 간 정상회담에 대해 압력을 넣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추정
- (참고) 공화당은 지난 1월 중국의 PNTR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상하원에서 동시 발의하였으며, 계류된 상황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장석일
▪ 자료원	The Hill(3.20), 조시 홀리 상원의원실(3.20), Congress.gov(3.21)

## Top Headlines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Wall Street Journal	<p><a href="#">How Bank Oversight Failed: The Economy Changed, Regulators Didn't</a> (금융감독의 실패: 변화한 사회와 규제당국의 제자리 걸음)</p> <p>규제당국은 채권 가치의 절하와 예금 인출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간과했던 것으로 보인다.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로 바뀐 사회가 사태를 더 악화시켜...</p>
The Washington Post	<p><a href="#">Biden says U.S., Canada are two countries with 'one heart'</a> (바이든, “미국과 캐나다는 하나의 심장을 공유하는 두 국가”)</p> <p>바이든 대통령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지구상 어떤 국가도 우리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있지 않다고 발언.</p>
New York Times	<p><a href="#">U.S. Arms Production Can't Keep Up as Ukraine War Drains Supply</a> (미국 방산 생산역량, 우크라이나발 수요 충족불가)</p> <p>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무기수요로 미국의 방위산업 생산역량의 부족한 민낯이 드러나. 간단한 탄약부터 최첨단 무기까지, 공급망 취약성을 느낄 수 있어</p>
CNN	<p><a href="#">Kremlin: 'Critically important' to identify object discovered next to Nord Stream pipelines</a> (크렘린, 노드스트림 폭발 현장에서 발견된 물체 감식 중요성 강조)</p> <p>크렘린 대변인은 노드스트림 송유관 폭발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물체를 감식하는 것이 앞으로 조사 행방에 중요할 것이라 밝혀.</p>
USA Today	<p><a href="#">Threat aimed at Manhattan DA Alvin Bragg as Trump urges protests</a> (앨빈 브랙 검사에게 향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화살)</p> <p>트럼프가 지지자 대상으로 결집 및 데모를 촉구하는 가운데, 트럼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앨빈 브랙 검사가 금요일, 협박 편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</p>

\* 미국 동부시간 3월 24일 16시 기준

## Notice

### 주요 경제·통상 일정

\*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

□ **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**

◆ **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경제통상리포트** (과거 리포트 : [☞헤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☞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3-11	<a href="#">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탈탄소화 지원정책 현황</a>	2023.03월
US23-10	<a href="#">2024년 美 대통령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</a>	2023.03월
US23-09	<a href="#">美 의회의 대중경쟁 관련 주요 법안 내용</a>	2023.03월
US23-08	<a href="#">美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방안 주요 내용</a>	2023.03월
US23-07	<a href="#">2023년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의제 주요 내용</a>	2023.03월
US23-06	<a href="#">2022년 미국 수출입무역 동향 및 현지반응</a>	2023.03월
US23-05	<a href="#">美 바이아메리카 규정 면제 사례 현황 업데이트 및 시사점</a>	2023.02월
US23-04	<a href="#">미국 바이아메리카 특혜 지침 개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</a>	2023.02월

◆ **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, 기획조사** (과거 보고서 : [☞헤드림 심층보고서☞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2-기 획7	<a href="#">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</a>	2023.01월
US22-기 획6	<a href="#">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</a>	2022.12월
US22-기 획5	<a href="#">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</a>	2022.12월
US22-기 획4	<a href="#">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</a>	2022.11월

◆ **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** (과거 인터뷰 : [☞유튜브 KOTRA TV☞](#))

인터뷰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시-9 (2023.3.15)		
코인시-8 (2023.2.22)		